

보도자료

LA한국문화원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323)936-7141 Fax(323)936-5712

제2016-06호

2/15/2016

수신 : 각사 보도, 편집국장

참조 : 문화 담당 기자

제목 : “대한민국 만화의 미래를 말하다” 전시 개최

- 전시명 : 대한민국 만화의 미래를 말하다
- 전시일정 : 2월26일(금)-3월11일(금)
- 장소 :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 문의 :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최희선 323-936-3014

대한민국 만화의 미래를 말하다!

LA한국문화원은 (주)코코스과 함께 ‘대한민국 만화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카툰 전시회를 2016년2월26일(금)부터 3월11일(금)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카툰 전시회는 기존 카툰 전시회와는 달리, 대한민국 만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한국만화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핵심인 미래존에서는 기존 만화콘텐츠에 오디오(음성+효과음) 효과를 접목시켜 더욱 생동감 있고 재미를 제공하는 새로운 만화콘텐츠,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오디오카툰과 그것을 다양한 디바이스에 접목시킨, 오디오카툰 ‘대국’ 창작뮤지컬을 소개 하는 등 재미있고, 창조적이며, 융합적인 콘텐츠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글로벌 카툰 전시회 미래관, koktoon 이미지>

전시의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존으로 구분하여 시대별 만화의 특성을 소개하여 한국만화의 특징과 성장과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 **한국 만화의 과거를 말하다:** 일제, 60-70년대, 80-90년대 작품 소개 및 각 시대별 대표작가의 만화 전시시대상을 반영한 흑백 출판 만화로 한국 만화의 기초를 세웠던 한국 만화의 효시인 1909년 6월 2일 창간된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삽화’(插畫)라는 이름의 1칸 만화(시사만화)부터 각 시대별 만화산업의 발전 방향 및 대표작가·작품 전시
- **한국 만화의 현재를 말하다 :** 2000년대 컬러만화 및 모바일 웹툰 대표작품 소개 및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컬러 웹툰 대표작가 작품 전시 (윤태호 미생, 이끼, 아귀, 옥수역 귀신 등)
- **한국 만화의 미래를 말하다 :** 오디오/ 모션카툰을 통해 미래 만화시장을 먼저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는 만화에서 듣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 만족인 체험형 만화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만화의 대표작가 및 작품 전시 (콧코스의 오디오카툰)

- 안철주 작가의 뮤지컬 창작극 ‘불멸의 이순신’, 김훈 작가의 ‘대국’, 김세영 작가의 ‘갬블시티’ 등

또한, 이번 전시 중 주목을 끄는 것 중에는 “만화그리기 체험 공간”을 설치하여 관객이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될 것이다.



이번 글로벌 카툰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 만화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만화를 미국시장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